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장 여 옥*

The Effects of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on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Attitude

Chang, Yo Ok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S시에 거주하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 20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도구는 스마트폰 중독척도(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1), 양육효능감척도(최형성·정옥분, 2001), 양육태도척도(배문주, 2005)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피어슨 상관분석, T검정,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영역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는 일상생활장애가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영역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장애는 거부적 태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상세계지향성은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모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스마트폰 중독, 양육효능감, 양육태도

* 주저자: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초빙교수(E-mail : yochang75@gmail.com)

I. 서론

휴대전화와 컴퓨터기능이 합쳐진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계(Bae & Jeong, 2008)로 현대인들의 삶의 양식을 바꾸고 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문명의 발달은 생활상의 편리함을 제공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1). 또한 스마트폰 사용은 가족 구성원들의 소통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새로운 대화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정은희, 2008).

이와 같은 스마트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나 중독은 가정, 학교,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1). 현대사회의 스마트폰 중독현상은 개인의 문제뿐 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장재홍, 김광현, 2009). 스마트폰 중독이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시간을 많이 보냄으로써 사용증가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김병년, 2013; 서지혜, 2012). 게다가 개인의 스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강박적 사용의 결과로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없는 불편함을 내포하고 있다(우형진, 2006; 이해경, 2009).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만 10세-49세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및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11.8%(2,998천명)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2013년 8.9%로 2011년 7.9%에 비해 1.0% 증가하였고, 2012년 9.1%에 비해 0.2%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2012년 63.7%에서 2013년 71.6%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스마트폰의 잘못된 사용은 시력저하와 같은 신체적 문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안 및 초조현상과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우울 및 부적응의 심리적 문제, 주의집중력과 인지능력 저하의 인지적 문제, 부모나 친구들과의 대화단절의 사회적 및 인간관계적 문제를 초래하며, 메신저나 채팅을 통한 의사소통방식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인다(김혜영, 장예빛, 정의준, 유승호, 2013; 박지영, 김귀애, 홍창의, 2012; 최현석, 이현경, 하경철, 2012).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지기는 하였지만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만나게 되는 최초의 사회적인 환경이며 인간은 가정생활을 통해서 사회적인 규범을 포함한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습득하게 되고,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 및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지식 및 규칙을 배우게 된다(안창규, 1992; 홍경자, 2007). 특히 영유아기의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화 과정을 배우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신이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의미한다(이주옥, 2008).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녀가 성공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문화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의 능력이며

부모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나타낸다(Pelletier & Brent, 2002). O'Neil, Wilson, Shaw 그리고 Dishion(2009)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반응하고 관여하는데 도움을 주며, 자녀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도전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확신과 믿음 그리고 자녀의 심리적 및 사회적 적응능력과 인지능력을 포함하여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일관성을 유지하며 융통성 있게 행동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 부모 역할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느끼며, 자녀의 학업성취와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자녀의 스트레스와 우울성향을 낮추는데 영향을 준다(이보영, 2012; 이송이, 2006; 정정애, 2010; Ardel & Eccles, 2001; Coleman & Karraker, 2000; Thomas, Feeley, & Grier, 2009). 반면에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자녀에게 강압적, 지시적, 통제적인 경우가 많으며, 부모역할을 능동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leman & Karraker, 1998).

스마트폰 중독과 양육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혜, 2013).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종전과 같은 수준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자하는 내성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연구되었다(현은자, 조메리명희, 조정선, 김태영, 2013). 또한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이 높은 어머니는 일상체계조직과 훈육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낮아지며,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들 또한 스마트폰 중독현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정숙, 2014).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이므로 유사연구인 인터넷 중독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박중규와 배성만(2012)은 인터넷 중독은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우울 및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및 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장영애와 박정희(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은 가족간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어머니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여부는 자녀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육효능감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자신감과 믿음이라면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며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부모의 가치관, 가정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수준,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와 관련이 있다(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성장과정, 가치관, 사회적 규범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양육태도에 대한 특성과 유형들이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Symonds(1949)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자녀에 대한 수용(간섭형과 불안형)-거부(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 지배(기대형과 엄격형)-복종(복종형과 익애형)의 2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소년기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종단적으로 연구한 Schaefer(195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거부(love-hostility)와 자율-통제(autonomy-control)로 유형화하였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지각유형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로 분류하였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김지혜(201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을

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지 못하고 거부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결과가 미흡하므로 스마트폰 사용과 가정의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시간의 스마트폰 사용은 가족의 친밀도, 원활한 가족 간의 의사소통,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기리, 이선정, 신호식, 2008; 현은자, 김태영, 조메리명희, 박은미, 2011), 디지털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족일수록 가족의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연구되었다(정은희, 2008). 이처럼 스마트폰의 사용은 전반적으로 가족구성원간의 소통이나 친밀도에 장애가 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가정에서의 디지털 환경은 결국에는 유아의 디지털 사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옥, 김민화, 김승옥, 김혜수, 2006).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롯한 부모의 올바른 역할과 책임은 자녀의 인지적, 사회적, 행동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소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의 역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청소년과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김병년, 2013; 서창민, 이종훈, 최태연, 김지현, 신임희, 2012; 장여옥, 조남익, 2014)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김지혜, 2013; 현은자, 박은미, 조메리명희, 김태영, 2013; 현은자 등, 2013)는 매우 미비한 현실이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어머니는 영유아의 발달, 양육과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양육효능감 및 양육태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양육효능감 및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별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효능감 및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어머니에게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어머니의 적절한 태도와 긍정적인 확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학력, 직업)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S시에 거주하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 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2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자녀의 성별은 여아 96명(47.3%), 남아 107명(52.7%)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을 살펴보면 5세-6세 미만이 61명

(30.0%), 4세-5세 미만 60명(29.6%), 3세-4세 미만 51명(25.1%), 6세-7세 미만 31명(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36세-40세가 95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31세-35세 60명(29.6%), 40세 이상 42명(20.7%), 26세-30세 6명(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졸이 129명(63.5%), 대학원졸 이상 41명(20.2%), 전문대졸 30명(14.8%), 고졸 3명(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업주부가 110명(5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 40명(19.7%), 사무직 37명(18.2%), 자영업 9명(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한 응답은 1시간-2시간 미만이 74명(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미만 44명(21.7%), 2시간-3시간 미만 43명(21.2%), 3시간-4시간 미만 24명(11.8%), 4시간 이상 18명(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용도는 인터넷웹서핑이 100명(49.3%)로 가장 많았으며, 채팅 34명(16.7%), 음성통화 25명(12.3%), 카페 및 블로그 활동 19명(9.4%), 게임 4명(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 소득을 살펴보면 500-599만원이 44명(21.7%)으로 가장 많았으며, 400-499만원 34명(16.7%), 600-699만원 31명(15.3%), 200-299만원 7명(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스마트폰 중독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마트폰 척도지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일상생활장애(5문항), 가상세계지향성(2문항), 금단(4문항), 내성(4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부정적인 문항인 3문항은 역채점으로 처리하였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의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본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하위영역 신뢰도는 일상생활장애 .77, 가상세계경험지향성 .83, 금단 .79, 내성 .80이었다.

2) 양육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도구는 총 3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요인으로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능력이나 지식을 측정하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11문항, 자녀의 심신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나 지식을 측정하는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7문항, 자녀의 이해 및 수용,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의사소통능력' 9문항, 자녀의 지적학습을 지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학습지도능력' 6문항,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훈육능력'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양육효능감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전체 양육효능감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 는 .95이며, 하위영역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 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90,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75, 의사소통능력 .87, 학습지도능력 .79, 훈육능력 .64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3)

		빈도	비율(%)
자녀 성별	남아	107	52.7
	여아	96	47.3
자녀 연령	3세-4세 미만	51	25.1
	4세-5세 미만	60	29.6
	5세-6세 미만	61	30.0
	6세-7세 미만	31	15.3
어머니 연령	26세-30세	6	3.0
	31세-35세	60	29.6
	36세-40세	95	46.8
	40세 이상	42	20.7
어머니 학력	고졸	3	1.5
	전문대졸	30	14.8
	4년제 대졸	129	63.5
	대학원졸 이상	41	20.2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110	54.2
	전문직	40	19.7
	자영업	9	4.4
	사무직	37	18.2
	기술직 판매/서비스직	4 3	2.0 1.5
스마트폰 사용시간	1시간 미만	44	21.7
	1시간-2시간 미만	74	36.5
	2시간-3시간 미만	43	21.2
	3시간-4시간 미만	24	11.8
	4시간-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10 8	4.9 3.9
스마트폰 주사용용도	음성통화	25	12.3
	인터넷웹서핑	100	49.3
	음악/영화/DMB시청	10	4.9
	게임	4	2.0
	채팅(카카오톡 등)	34	16.7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카페, 블로그 활동	11 19	5.4 9.4
가정 월 소득	200-299만원	7	3.4
	300-399만원	24	11.8
	400-499만원	34	16.7
	500-599만원	44	21.7
	600-699만원	31	15.3
	700-799만원	21	10.3
	800-899만원 900만원 이상	23 19	11.3 9.4

3)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척도는 Schaefer(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를 이원영(1983)이 번안하고 추후에 배문주(2005)가 수정·보완한 양육태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양육태도 검사지는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정적 태도 12문항, 거부적 태도 12문항, 자율적 태도 12문항, 통제적 태도 12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각 영역별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별 양육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 는 .71이며, 하위영역 신뢰도계수인 Cronbach's α 는 애정적 태도 .82, 거부적 태도 .77, 자율적 태도 .67, 통제적 태도 .68이었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 가족의 월 소득,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위험은 감소하지만, 가구의 월 소득이 높아지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스마트폰 중독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현은자 등, 2013).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되었으며 경기도 S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2기관과 유치원 3기관을 임의표집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각 기관의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각 기관의 협조를 구하였다. 각 담임교사는 연구자가 작성한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동의서, 설문지를 각 반의 유아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전달하게 한 후, 어머니가 연구에 참여하고자 동의한 경우에 한 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어머니가 작성한 설문지는 자녀를 통해서 다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 28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미 회수되었거나 불완전한 응답지를 제외한 203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양육효능감 및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한 후(모델 1), 독립변수인 스마트폰 중독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모델 2)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양육효능감 및 양육태도 기술통계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양육효능감 및 양육태도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중심으로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8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상성이 성립된다고 보았다(Kline, 2005). 먼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을 살펴보면, 4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체 평균 1.83점($SD=.50$)이었다.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변인별 점수를 살펴보면, 내성 1.97점($SD=.62$), 일상생활장애 1.85점($SD=.56$), 금단 1.78점($SD=.55$), 가상세계지향성 1.58점($SD=.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3.79점($SD=.41$)이며 하위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3.94점($SD=.43$), 의사소통능력 3.94점($SD=.45$), 훈육능력 3.78점($SD=.46$), 학습지도능력 3.72점($SD=.51$),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3.60점($SD=.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평균 3.41점($SD=.21$)이며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애정적 태도 4.00점($SD=.41$)이 다른 하위영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적 태도 3.61점($SD=.38$), 통제적 태도 3.48점($SD=.41$), 거부적 태도 2.56점($SD=.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양육효능감 및 양육태도 평균과 표준편차

($N=203$)

측정변인	하위변인	N	M	SD	왜도	첨도
스마트폰 중독	일상생활장애	203	1.85	.56	.19	-.57
	가상세계지향성	203	1.58	.66	.29	1.66
	금단	203	1.78	.55	.24	.28
	내성	203	1.97	.62	.06	-.66
	전체	203	1.83	.50	.21	-.39
양육 효능감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203	3.60	.49	-.05	.78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203	3.94	.43	.01	.34
	의사소통능력	203	3.94	.45	-.28	.79
	학습지도능력	203	3.72	.51	-.21	.49
	훈육능력	203	3.78	.46	-.26	.21
전체	203	3.79	.41	-.16	.78	
양육 태도	애정적 태도	203	4.00	.41	-.16	-.38
	거부적 태도	203	2.56	.45	.07	-.05
	자율적 태도	203	3.61	.38	.08	-.11
	통제적 태도	203	3.48	.41	-.20	.34
	전체	203	3.41	.21	.29	.58

2.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양육효능감 및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양육효능감 및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스마트폰 중독과 전체 양육효능감 점수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29, p<.01$)를 보였다.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변수인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은 양육효능감($r=-.30, p<.01$; $r=-.22, p<.01$; $r=-.16, p<.05$; $r=-.26, p<.01$)과 부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양육효능감에 확신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스마트폰 중독은 전체 양육태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과 양육태도의 하위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내성이 높을수록 애정적 태도($r=-.18, p<.01$; $r=-.28, p<.01$; $r=-.14, p<.0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이 높을수록 거부적 태도($r=.28, p<.01$; $r=.24, p<.01$; $r=.18, p<.05$; $r=.25, p<.01$)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세계지향성은 부적으로 자율적 태도($r=-.21, p<.01$)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88**	1														
3	.67**	.42**	1													
4	.85**	.61**	.56**	1												
5	.91**	.76**	.53**	.68**	1											
6	.04	.04	-.08	.06	.06	1										
7	-.19**	-.18**	-.28**	-.09	-.14**	.55**	1									
8	.29**	.28**	.24**	.18*	.25**	.26**	-.51**	1								
9	-.15*	-.10	-.21**	-.11	-.12	.56**	.59**	-.34**	1							
10	.09	.04	.05	.12	.09	.70**	.15*	.25**	.02	1						
11	-.29**	-.30**	-.22**	-.16*	-.26**	.42**	.68**	-.43**	.54**	.18*	1					
12	-.29**	-.30**	-.18	-.15*	-.28**	.36**	.61**	-.43**	.47**	.16*	.93**	1				
13	-.24**	-.22**	-.21**	-.17*	-.21**	.39**	.60**	-.38**	.51**	.14*	.86**	.74**	1			
14	-.29**	-.31**	-.24**	-.15*	-.25**	.33**	.64**	-.48**	.55**	.07	.91**	.76**	.73**	1		
15	-.18**	-.24**	-.12	-.08	-.16*	.40**	.55**	-.29**	.41**	.22**	.87**	.75**	.67**	.74**	1	
16	-.23**	-.19	-.24**	-.15*	-.24**	.44**	.46**	-.17**	.39**	.28**	.74**	.62**	.58**	.63**	.58**	1

* $p<.05$, ** $p<.01$

1.스마트폰 중독, 2.일상생활장애, 3.가상세계지향성, 4.금단, 5.내성, 6.양육태도, 7.애정적 태도, 8.거부적 태도, 9.자율적 태도, 10.통제적 태도, 11.양육효능감, 12.전반적인 양육효능감, 13.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14.의사소통능력, 15.학습지도능력, 16.훈육능력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차이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은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 때보다는 낮을 때 더 많이 스마트폰 중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차이

(N=203)

		스마트폰 중독		
		MSD	t	F
어머니 연령	40세 이하	1.87(.50)	2.185*	.002
	40세 이상	1.68(.49)	2.190*	
어머니 학력	전문대졸이하	1.81(.50)	-.173	.214
	대졸이상	1.83(.50)	-.172	
어머니 직업	있다	1.88(.48)	1.418	.580
	없다	1.78(.51)	1.423	

* $p < .05$

4.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

1)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확인하였다. 공차한계의 값이 .1 미만이거나 분산팽창계수가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간주한다(이종구, 2000). 본 연구에서는 공차한계의 값이 .27~.98,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12~1.333으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계적 회귀분석의 해석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효능감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5>와 같다. 통제변수만 포함된 모델 1의 분석결과 통제변수들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회귀모형은 적합하며($F=6.342$, $p < .001$), 모델의 설명력은 8.7%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어머니의 연령($t=-2.180$, $p < .05$)은 부정적으로, 가정의 월 소득($t=3.783$, $p < .001$)은 정적으로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에 자신이 없어지고, 가정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 2를 분석한 결과 9.4%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결과는 모델 1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연령($t=-2.586$, $p < .05$)은 부정적으로, 가정의 월 소득($t=3.271$, $p < .01$)은 정적으로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에서 일

상생활장애($t=-2.533, p<.05$)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어머니는 양육효능감에 자신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모델 1			모델 2		
		B	β	t	B	β	t
통제변수	어머니 연령	-.080	-.149	-2.180*	-.092	-.172	-2.586*
	가정 월 소득	.055	.258	3.783***	.046	.217	3.271**
	스마트폰 사용시간	-.030	-.094	-1.385	.018	.057	.735
독립변수	일상생활장애				-.190	-.258	-2.533*
	가상세계지향성				-.069	-.110	-1.359
	금단				.105	.140	1.472
	내성				-.088	-.132	-1.067
R^2			.087			.181	
Adjusted R^2			.073			.152	
R^2 Change			.087			.094	
F			6.342***			5.588***	

* $p<.05$, ** $p<.01$, *** $p<.001$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태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6>과 같으며 통제변수만 포함된 모델 1($F=2.005$)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 2($F=1.501$)의 회귀모형은 적합하지 않았다.

<표 6>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모델 1			모델 2		
		B	β	t	B	β	t
통제변수	어머니 연령	-.013	-.046	-.652	-.010	-.036	-.506
	가정 월 소득	.007	.067	.952	.006	.057	.793
	스마트폰 사용시간	.024	.150	2.133*	.027	.167	1.998*
독립변수	일상생활장애				-.011	-.029	-.268
	가상세계지향성				-.056	-.173	-1.984*
	금단				.048	.129	1.228
	내성				-.001	-.002	-.013
R^2			.029			.051	
Adjusted R^2			.015			.017	
R^2 Change			.029			.022	
F			2.005			1.501	

* $p<.05$

2)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효능감 하위변수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효능감 하위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7>과 같다. 첫째, 통제변수만 포함된 모델 1의 분석결과 통제변수들의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에 대한 회귀모형은 적합하며($F=5.165, p<.01$), 모델의 설명력은 7.2%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의 월 소득($t=3.325, p<.01$)은 정적으로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월 소득이 증가할수록 어머니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 2를 분석한 결과 8.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모델 1과 같이 가정의 월 소득($t=2.868, p<.01$)은 정적으로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에서 일상생활장애($t=-2.432, p<.05$)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양육효능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통제변수만 포함된 모델 1의 분석결과 통제변수들의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회귀모형은 적합하며($F=8.711, p<.001$), 모델의 설명력은 11.6%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t=-2.834, p<.01$)은 부적으로, 가정의 월 소득($t=4.540, p<.05$)은 정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며, 가정의 월 소득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 2를 분석한 결과 6.4%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모델 1과 같이 어머니의 연령($t=-3.185, p<.05$)은 부적으로, 가정의 월 소득($t=3.971, p<.001$)은 정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에서 일상생활장애($t=-1.308, p<.01$)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통제변수만 포함된 모델 1의 분석결과 통제변수들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회귀모형은 적합하며($F=4.330, p<.01$), 모델의 설명력은 6.1%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t=-2.395, p<.05$)은 부적으로, 가정의 월 소득($t=2.708, p<.01$)은 정적으로 의사소통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 2를 분석한 결과 1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모델 1과 같이 어머니의 연령($t=-2.773, p<.01$)은 부적으로, 가정의 월 소득($t=2.171, p<.05$)은 정적으로 의사소통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에서 일상생활장애($t=-2.937, p<.01$)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7>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효능감 하위변수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B	t	B	t	B	t	B	t	B	t	B	t
통 제 변 수	어머니 연령	-.057	-1.301	-.072	-1.689	-.106	-2.834*	-.118	-3.185*	-.097	-2.395*	-.108	-2.773*
	가정 월 소득	.058	3.325**	.049	2.868**	.068	4.540*	.059	3.971***	.044	2.708**	.034	2.171*
	스마트폰 사용시간	-.050	-1.932	.003	.107	-.006	-.284	.039	1.521	-.031	-1.283	.022	.796
독 립 변 수	일상생활 장애			-.219	-2.432*			-.102	-1.308*			-.242	-2.937*
	가상세계 지향성			-.044	-.713			-.070	-1.321			-.103	-1.831
	금단			.132	1.543			.024	.317			.125	1.597
	내성			-.117	-1.179			-.090	-1.045			-.064	-.710
R^2		.072		.153		.116		.118		.061		.171	
<i>Adjusted R²</i>		.058		.123		.103		.151		.047		.141	
R^2 Change		.072		.081		.116		.064		.061		.110	
<i>F</i>		5.165**		5.034***		8.711***		6.115**		4.330**		5.755***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							
		모델 1		Model 2		모델 1		모델 2					
		B	t	B	t	B	t	B	t				
통 제 변 수	어머니 연령	-.088	-1.912	-.098	-2.156*	-.044	-1.078	-.053	-1.297				
	가정 월 소득	.054	2.905*	.047	2.596*	.054	3.270*	.045	2.719*				
	스마트폰 사용시간	-.015	-.559	.024	.749	-.037	-1.519	.006	.215				
독 립 변 수	일상생활 장애			-.270	-2.804*			-.025	-.285				
	가상세계 지향성			-.038	-.581			-.110	-1.864				
	금단			.136	1.487			.080	.967				
	내성			-.033	-.308			-.141	-1.486				
R^2		.053		.118		.063		.116					
<i>Adjusted R²</i>		.039		.087		.049		.085					
R^2 Change		.053		.065		.063		.053					
<i>F</i>		3.729*		3.738**		4.482**		3.669**					

* $p < .05$, ** $p < .01$, *** $p < .001$

넷째, 통제변수만 포함된 모델 1의 분석결과 통제변수들의 학습지도능력에 대한 회귀모형은 적합하며($F=3.729, p<.05$), 모델의 설명력은 5.3%로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의 월 소득($t=2.905, p<.05$)은 정적으로 학습지도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 2를 분석한 결과 6.5%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어머니의 연령($t=-2.156, p<.01$)은 부적으로, 가정의 월 소득($t=2.596, p<.05$)은 정적으로 학습지도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에서 일상생활장애($t=-2.804, p<.01$)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불평을 들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수록 자녀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모델 1의 분석결과 통제변수들의 훈육능력에 대한 회귀모형은 적합하며($F=4.482, p<.01$), 모델의 설명력은 6.3%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의 월 소득($F=3.270, p<.01$)은 정적으로 훈육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 2를 분석한 결과 5.3%의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가정의 월 소득($t=2.719, p<.01$)은 정적으로 훈육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태도 하위변수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태도 하위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8>과 같다. 첫째, 모델 1의 분석결과 통제변수들의 애정적 태도에 대한 회귀모형은 적합하며($F=3.233, p<.05$), 모델의 설명력은 4.6%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t=-2.236, p<.05$)은 부적으로, 가정의 월 소득($t=2.369, p<.01$)은 정적으로 애정적 태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 2를 분석한 결과 10.8%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어머니의 연령($t=-2.319, p<.01$)은 부적으로 애정적 양육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에서 가상세계경험지향성($t=-3.687, p<.001$)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가상세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시간을 보낼수록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가 낮아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모델 1의 분석결과 통제변수들의 거부적 태도에 대한 회귀모형은 적합하며($F=4.019, p<.001$), 모델의 설명력은 5.7%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 소득($t=-2.460, p<.05$)은 부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시간($t=2.131, p<.05$)은 정적으로 거부적 태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 2를 분석한 결과 7.4%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에서 일상생활장애($t=2.186, p<.05$)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델 1의 분석결과 통제변수들의 자율적 태도에 대한 회귀모형은 적합하며($F=3.999, p<.01$), 모델의 설명력은 5.7%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 소득($t=2.552, p<.05$)은 정적으로 자율적 태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 2를 분석한 결과 6.9%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스마트폰 사용시간($t=3.252, p<.01$)은 정적으로 자율적 양육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에서 가상세계지향성($t=-2.166, p<.01$)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을 통해 가상세계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더 많이 형성할수록 어머니의 자율적 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마트폰 중독이 통제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회귀모델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태도 하위변수에 미치는 영향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B	t	B	t	B	t	B	t
통제변수	어머니 연령	-.083	-2.236*	-.084	-2.319*	.067	1.640	.075	1.881
	가정 월 소득	.035	2.369*	.027	1.839	-.040	-2.460*	-.031	-1.951
	스마트폰 사용시간	.004	.188	.040	1.612	.051	2.131*	.008	.293
	일상생활 장애			-.143	-1.876			.185	2.186*
독립변수	가상세계 지향성			-.191	-3.687***			.096	1.670
	금단			.136	1.871			-.071	-885
	내성			-.024	-.286			.040	.425
	R^2	.046		.154		.057		.131	
$Adjusted R^2$.032		.124		.043		.100		
$R^2 Change$.046		.108		.057		.074		
F	3.233*		5.070***		4.019***		4.211**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B	t	B	t	B	t	B	t
통제변수	어머니 연령	-.055	-1.631	-.063	-1.893	.022	.578	.032	.837
	가정 월 소득	.035	2.552*	.026	1.911	-.001	-.039	.004	.257
	스마트폰 사용시간	.036	1.785	.076	3.252**	.006	.262	-.016	-.594
	일상생활 장애			-.004	-.058			-.082	-1.019
독립변수	가상세계 지향성			-.104	-2.166**			-.024	-.429
	금단			.022	.333			.106	1.379
	내성			-.113	-1.452			.095	1.070
	R^2	.057		.126		.002		.027	
$Adjusted R^2$.043		.095		.012		.008		
$R^2 Change$.057		.069		.002		.025		
F	3.999**		4.029***		.125		.759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파악하여 어머니의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연령, 학력, 직업에 따라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연령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연령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인 30대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이 40대보다 높으며(미래창조과학부, 2014), 연령이 낮은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접착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높다는 연구결과(Connell, Lauricella, & Wartella, 2015)와 동일하다. 또한 연령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결과(현은자 등, 2013)와 비슷하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이나 대학생 연구들(서창민 등, 2012; 장여옥, 조남익, 2014)에 비해 부족한 현실이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학력 및 직업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 가정의 월 소득,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통제된 상태에서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효능감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아지며, 가정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적어진다(이주옥, 2008)는 연구와 동일한 반면에 어머니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다(문혁준, 2005)는 연구결과와는 상이하다.

또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함께 통제변수가 양육효능감 하위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일상생활장애가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어머니가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이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 자녀와의 의사소통방식,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린다(김지혜, 2013)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상세계지향성과 금단이 높을수록 자녀의 올바른 훈육과 일상생활 관리의 어려움을 보인다(최정숙, 2014; 현은자 등, 2013)는 결과와는 상이하게 본 연구에서는 가상세계지향성과 금단 모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처럼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하위영역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용목적, 사용시간, 사용기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는 비즈니스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킹을 확장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Lenhart, Purcell, Smith, & Zickuhr, 2010), 이처럼 스마트폰을 정보의 목적이 아닌 여가시간 활용이나 타인과의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 환경에 빠져 들어서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지 못하고 중독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미래창조과학

부, 2014).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은 어머니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자녀의 일상을 관리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훈육방법을 쓰게 된다(Gross, Conrad, Fogg, & Wothke, 1994).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일반사용자군, 중독위험군, 고위험군 등으로 나누어서 양육효능감 하위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 연령, 가정의 월 소득,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통제변수로 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태도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높고 가정의 월 소득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이 높은 어머니가 낮은 어머니에 비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부모양육에 관련된 정보를 찾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Radey & Randolph, 2009)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함께 통제변수가 양육태도 하위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일상생활장애는 거부적 태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상세계지향성이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에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빈번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가사나 양육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자녀에게 적대감을 표현하고, 가상에서의 대인관계 교류를 선호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에 대한 애정표시가 적으며, 자녀의 자유로운 행동, 의사표현과 독립성을 덜 인정한다는 선행연구들(김기리 등, 2008; 현은자 등, 2011)과 비슷하다. 결국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은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잘못된 스마트폰 사용이 자신의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은 연령과 상관없이 가상공간이나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상호간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금희조, 조재호, 2010; 정은희, 2008). 그러나 스마트폰의 잘못된 사용은 표면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올바르게 지 않은 언어사용 및 신체적인 어려움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어머니의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은 자녀들이 쉽게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환경을 제공하며, 스마트폰의 노출로 인해 스마트폰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아동들은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정서적 및 사회성 발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 이처럼 어머니의 과도한 스마트폰사용은 본인의 문제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녀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사용법 및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해준다. 스마트폰 및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비해서 올바르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먼저, 학교나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해 보인다.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스마트폰 사용의 장단점,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스마트폰이 개인 및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생활변화가 자신의 행동과 자녀를 대하

는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주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신념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지역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폭넓은 지역과 연령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 양육효능감,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어머니가 보고한 자기보고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알 수는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태도 및 행동에 대해 아버지 또는 제3자가 평가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성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녀양육, 신념,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금희조, 조재호 (2010).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 격차, 그리고 정치참여: 소셜 미디어 효과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의 조절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5), 348-371.
- 김기리, 이선정, 신호식 (2008).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가족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4), 187-203.
- 김병년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208-217.
- 김지혜 (2013).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양육태도,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영, 장예빛, 정의준, 유승호 (2013). 대학생 스마트폰 사용 집단의 해석수준 및 자기통제와 스마트폰 중독사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2), 47-67.
- 문혁준 (2005).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5), 139-149.
- 미래창조과학부 (2014).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공동 연구보고서.
- 박중규, 배성만 (2012). 인터넷 사용동기,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심리, 정서적 문제가 초기 성인기 집단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419-434.
- 박지영, 김귀애, 홍창의 (2012).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이용 동기, 또래관계 및 정서적 요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1), 151-169.
- 배문주 (2005).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지혜 (2012). 고등학생의 개인, 부모, 또래 및 스마트폰 이용동기요인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구조적 관계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창민, 이종훈, 최태연, 김지현, 신임희 (2012). 스마트폰 중독 정도와 한국형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와 상관성에 대한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18(2), 223-230.
- 안창규 (1992). 학생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변인의 측정연구. **성곡논총**, 23, 119-170.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연구노우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1(1), 1-15.
- 우형진 (2006). 휴대폰 이용자의 자아성향이 휴대폰 중독 구성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1(2), 391-427.
- 이경옥, 김민화, 김승옥, 김혜수 (2006). **유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 개발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이보영 (2012). 부모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자녀의 창의적 성향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2(4), 115-132.
- 이송이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61-71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종구 (2000). **Windows용 SAS와 통계자료 분석**. 서울: 학지사.
- 이주옥 (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비교. **영유아교육연구**, 11, 41-61.
- 이정립, 도남희, 오유정 (2013).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정책 세미나**.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해경 (2009). 10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의 예측변인들: 20대, 30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1), 117-153.
- 장여옥, 조남익 (2014).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1(2), 137-156.
- 장영애, 박정희 (2007). 아동의 인터넷 사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한국생활과학회지**, 16(6), 1131-1140.
- 장재홍, 김광현 (2009).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57-183.
- 정은희 (2008). 디지털 기술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 20, 56-63.
- 정정애 (2010).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3), 1191-1202.
- 최정숙 (2014).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양육효능감의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현석, 이현경, 하경철 (2012).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K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데이터정보학회지**, 23(5), 1005-1015.
- 최형성, 정옥분 (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1).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현은자, 김태영, 조메리명희, 박은미 (2011). 가정에서의 디지털 모바일기기 사용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인식. **신앙과 학문**, 16(4), 245-266.
- 현은자, 박은미, 조메리명희, 김태영 (2013). 어머니의 스마트폰중독 수준 및 우울 점수와 유아의

- 문제행동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3(5), 181-205.
- 현은자, 조메리명희, 조정선, 김태영 (2013). 어머니의 스마트폰중독 수준,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관계연구. *유아교육연구*, 33(3), 203-221.
- 홍경자 (2007). *자기주장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Ardelt, M., & Eccles, J. (2001).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22(8), 944-972.
- Bae, J. K., & Jeong, H. M. (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factors by including functional attributes of smart phone adoption. *The E-Business Studies*, 9, 337-361.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1), 13-24.
- Connell, S. L., Lauricella, A. R., & Wartella, E. (2015). Parental co-use of media technology with their young children in the USA. *Journal of Child and Media*, 9(1), 5-21.
- Gross, D., & Conrad, B., Fogg, L., & Wothke, W. (1994). A longitudinal model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hood.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7, 207-215.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enhart, A., Purcell, K., Smith, A., & Zickuhr, K. (2010) *Social media and young adults*.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1-61. 출력일 2015년 03월 05일, Retrieved from <http://www.pewinternet.org/reports/2010/social-media-and-young-adults>.
- O'Neil, J., Wilson, M., Shaw, D. S., & Dishion, T. J.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fficacy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diverse sample of low income moth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6), 643-652.
- Pelletier, J., & Brent, J. M. (2002). Parent participation in children' school readiness: The effects of parental self-efficacy, cultural diversity and teacher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34(1), 45-61.
- Radey, M., & Randolph, K. A. (2009). Parenting sources: How do parents differ in their efforts to learn about parenting? *Family Relations*, 58(5), 536-548.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Thomas, J., Feeley, N., & Grier, P. (2009). The perceived parenting self-efficacy of first-time fathers caring for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32(4), 180-199.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on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attitude. This study consisted of 203 smartphone using mothers of preschoolers in Gyeonggi-do. The measurements included smartphone addiction scale(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the parenting efficacy scale(Choi & Chung, 2001), and the parenting attitude scale(Bae, 2005). These analyses were included in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T-test, and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younger mothers showed higher levels of smartphone addiction. The results of smartphone addiction subscales on parenting efficacy indicated that the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ing was related with general parenting ability, healthy parenting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learning guidance ability. The results of smartphone addiction subscales on parenting attitude showed that the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ing was positively related with rejective parenting attitude and virtual life orienta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affective and autonomous parenting attitude. These findings can emphasize parents' appropriate smartphone use, and be useful resources to develop and utilize the programs of positive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attitude.

▶*Key Words* : *smartphone addiction,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attitude*

논문투고 2014. 12. 08.
수정원고접수 2015. 03. 06.
최종게재결정 2015. 04. 09.